

축 사

'26. 10. 29. (목) 10:30

금 융 위 원 장
이 억 원

※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된 자료로 실제 축사 발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I. 인사 말씀

안녕하십니까.

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.

오늘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서
마음 편히 두드릴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여는 날입니다.
채무종합상담 대표번호 ☎1375의
정식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오늘 개통을 위해 애써주신
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님을 비롯한
신용회복위원회 직원분들과
현장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주시는
콜센터 상담직원 여러분,
참석해주신 정애리 신용회복위원회 홍보대사님을
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.

II. ☎1375 개통의 의미

빚은 단순히 돈을 갚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.
과도한 빚은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,
때로는 가정불화나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져
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.

채무조정이나 회생, 파산면책 등
다양한 채무자 구제·지원제도가 있음에도,
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
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.

그래서 더 넓게, 더 세심하게 챙기는 금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.
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
빛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
관련 지원제도를 국민께 널리 알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.

이에 금융위원회는
지난 7월 ‘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’을 마련하였습니다.
특히, 채무자 종합지원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
빛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한 번에 지원제도를 안내받고
실제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오늘 개통하는 ☎1375는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결실입니다.
불이 나면 119를 떠올리듯,
빛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
찾을 수 있는 번호, ☎1375입니다.
‘빛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한다’는 의미를 담은 이름처럼,
☎1375에서 필요한 도움을 안내받고,
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.

Ⅲ. 채무자 원스톱 지원 체계, ☎1375

빛 문제로 막막한데,
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 헤매고,
어렵게 연락해도 다른 기관을 다시 안내받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.
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.

오늘부터 ☎1375로 전화주시면 통화료 부담없이
채무상담과 금융·통신·전기요금 채무조정은 물론,
개인회생·파산 신청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등
채무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또한, 고용·복지·소상공인 등 복합지원을 통해,
채무문제의 근본 원인인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
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결해드립니다.

정책서민금융상품, 법률지원 등
유관기관의 직접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
통화종료 없이 바로 연결되어,
필요한 상담과 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.

채무와 함께 심리·생계 등 복합 위기를 겪는 분께는
전문 심층상담도 제공됩니다.
상담사가 전담직원처럼 자살 위험 등 위기징후를 세심히 살피고,
최적의 지원 방안을 설계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원합니다.

IV. 마무리 말씀

빛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필요한 것은
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이 아니라,
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.

빛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
금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로 힘든 국민께서
빛의 고통은 덜고,
재기의 희망은 더하도록
☎1375의 안정적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☎1375 한 통의 전화가 일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금융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